

국가유공자 희생 · 공헌 감사

군산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각종 보훈사업 관련 유공자 애로사항 등 고견 청취

군산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 및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있다.

군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8일 군산시 보훈 단체장 및 모범 국가유공자, 전북서부보훈지청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군산시의 각종 보훈 사업에 관한 유공자들의 애로사항 등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그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훈단체 발전 및 군산시 보훈 사업 보훈시설 지원봉사 등에 기여한 모범 국가유공자 10명에 대해 군산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들이 조국 수호를 위해 바친 값진 희생과 헌신은 세대를 넘어 잊혀져

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호국 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화합하고 격려해 시민과 함께 자립하는 군산 발전을 힘차게 이뤄 나가자"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8일 군산시 보훈 단체장 및 모범 국가유공자, 전북서부보훈지청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47대 익산라이온스클럽 회장 임원진 이·취임식이 합월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제47대 익산라이온스클럽 왕경배 회장 취임

왕경배 제47대 익산라이온스클럽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최근 제47대 익산라이온스클럽 회장 임원진 이·취임식이 합월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은 익산지역 부총재 이진석 익산지역 사무국장 주영철 전임 회장 박종철 신임회장 왕경배 신임총무 이병현 신임재무 박규준의 클럽회원 34명, 레스화원 20여명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진석 익산지역 부총재는 주영철 사무국장을 대동하고 총재시상 및 국제회장 축하 등을 대동해 익산라이온스클럽 회원 및 신임회장 왕경배 등을 격려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농업 선순환 경제 체계 만든다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

군산시가 자체 생산 유통되는 지역 농식품의 안전성관리와 로컬푸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8일 농업인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역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와 로컬푸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 푸드플랜 사업선정,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사업정책,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확대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산푸드 통합인증 시스템 수립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군산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에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이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 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

자에게 알리고 군산시가 인정한 지역 우수농산물임을 표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개발 및 정착 방안, 군산푸드 통합인증 기준 및 메뉴얼을 제시하고 로컬푸드 통합인증 시스템 운영절차, 로컬푸드 생산·소비 촉진 확대를 위한예비단계에서 인증 단계까지의) 5가지 기준, 5가지 단계적 인증시스템 방안 등을 마련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운영을 통해 군산시가 인증하는 지역농산물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판매되고 인정을 받아 농가의 소득이 증대 될 것"이라며, "지역농업을 통한 선순환 지역경제 체계를 만들어 지역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다이어트' 인센티브 혜택 연장

9~12월 규모·지원기준 재검토

익산시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 '다이어트'의 인센티브 지급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말까지 개별 인센티브 적용 구매년도 월 100만원 인센티브 10%를 지급한다.

또 정부 추경이 확정된 후 오는 9월

부터 12월까지 인센티브 규모와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페이백 제도는 6월 말까지 추진되며 6월분 결제액 10% 페이백은 다음 달 10일 지원된다.

시는 다이어트 카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 대상자 확대를 위해 NH 농협카드를 추가 확대 발행한다.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북 최초 충전식 선불

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했으며, 현재 발행액은 670여원을 넘어섰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 지원 대책 확대, 다이어트 앱 내 지역특산물 온라인쇼핑몰 가맹점 연동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농기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 현장 실증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 현장 실증모델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0년 농업용 전력수요는 국내 총 전력의 7~8% 점유를 전망하였고, 특히 시설원예 온실 운영비 중 에너지 비용이 30~45%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생산 현장의 에너지 절감과 자립을 위한 신개념의 에너지 활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전북농업기술원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쑤앤도리) 및 (주)XNS 엔지니어링 등 6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IPET)이 주관하는 '융복합(대수층 계간축열, 목재 펠릿 보일러, 하천수) 에너지 생산·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 사업에 응모한 결과 3년간 5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중 활용 가능성이 큰 지하 대수층(계간축열 활용)을 주 에너지원, 수열 에너지(하천

수)와 목재 펠릿 보일러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이용한 에너지 융복합 최적 적용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설원예 온실의 냉·난방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의 생산 현장에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장비 생육의 최적 재배환경 조건 설정 및 시스템 적용 후 생산성 검증 연구에 참여한다.

충적 대수층의 지하수와 하천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지열 시스템보다 설치비용이 적고 경우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아 최소 30%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대학교 · 호남본부 붉은불개미 합동예찰

군산대학교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이하 호남본부)는 매년 외래 검역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합동예찰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15일)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민관학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합동예찰을 실시했다.

예찰에 앞서 군산대 김효중 교수(생물학과)는 '국내 항만에서 예찰발견 가능성이 높은 외래종 개미류'를 주제로, 국내 유입이 빈번하고 국제적 위험성 등급이 높은 개미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세미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본부가 개최했다. 군산대학교와 호남본부는 2018년부터 붉은불개미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래 검역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 4회 정기적인 합동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붉은불개미 등 검역해충 조기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방제프로그램 개발 연구에도 협력하면서, 외래 검역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광대 교수학습센터 WK-전공 튜터링 발표회

원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최근 '학습역량강화 장학금 WK-전공 튜터링 PPT 발표회'를 실시간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개최했다.

재학생 성적향상을 위한 WK-전공 튜터링 프로그램은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중도탈락과 이탈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대학생활 지도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학습태도와 또래 교수법을 활용한 팀원 간 협업능력을 배양하고, 성적부진 및 학사경고 학생들의 성적향상 도모를 위해 기획했다.

교수학습센터는 이를 통해 장학금 지급과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비롯해 전공·기초학습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